

이기는 삶

다시 시작하자

누구나 한 번쯤 인생을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게 될 때가 있다. 전공을 바꾸거나 직장을 옮기는 등 매우 다양하게 존재한다. 보란 듯이 성공을 꿈꾸며 열정을 가지고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나아갔지만 벼랑 끝에 다다른 경우가 그렇다.

이때 실패했다는 자괴감에 절망에 빠지고 만다. 마음속 한 구석이 답답한 것이 뭇가에 갇힌 느낌이 들고, 이 길을 어떻게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아 더욱 불안해진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만다. 그러나 실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인생사(人生事) 새옹지마(塞翁之馬)다. '잘 되려고 일이 이렇게 되었나보다' 하고 다시 시작하자.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어도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는 있다. 마음먹기 나름이다.

먼저 마음을 깨끗이 비워라. 삶의 새로운 갈림길에 서게 되면 너무 많은 생각에 잠기기 마련이다. 지난 일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은 쓸데없이 구멍이만 파는 일일뿐이다. 지난생각은 심신(心身)을 지치게 하여

병을 불러올 수 있으니 마음을 깨끗이 비워야 한다. 그리고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라. 분명 주변의 질타와 공격을 받게 될 것이다. 그때마다 상처받아 마음에 담아 둘 필요가 없다. 당신은 당신을 헐뜯는 사람보다 나은 게 훨씬 많은 사람이니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자신이 못났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지금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스스로를 과장하려는 노력은 부질없는 짓이다. 당장 눈앞의 상황에 연연하지 마라. 인생은 긴 시간을 달려야 하는 마라톤이다. 평생을 두고 당신이 얼마나 발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에 더 에너지를 투자하라.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하라. 작은 것이라도 무엇이든 시작해야 한다.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고 하여 불행과 슬픔의 기본이 없어지지 않는다.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설정해서 하나씩 해낸다면, 조금씩 자신감이 생겨 더욱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실패에 대하여 세상 탓은 이제 그만해라. 당신은 불쌍한 실패자가 아니다. 자신이 처한 고단한 현실에 대

해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가 중요하다. 내 인생에 스스로 주인공이 되어 모든 걸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나 자신의 어려움과 부족함에 대한 자책을 멈추고 자아존중을 하라. 운이 나쁘다고도 생각하지 마라.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데 마법 같은 해결책은 없다. 진심으로 행복해지고 싶다면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한다. 마음에 차오르는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끊고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 '나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실패와 좌절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다. 나쁜 일이 생길 때 '살다보면 그럴 수도 있지' 하며 툭툭 털고 일어나는 습관을 지녀야 한다. 다시 도전하면 된다는 마음을 가져야 성장할 수 있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다시 밑바닥부터 시작하면 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마라. 자신이 원하는 행복을 이루려면 이웃의 화려한 성공과 비교해서도 안 된다. 불행과 행복의 기준엔 항상 내가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부러워하고 질투를 느낀다면, 나의 삶이 더욱 비참하게 느껴질 뿐이다. 그러니 툭툭 털어버리고 '까짓 뭐' 하고 다시 시작하자.*



수니의
요가교실

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요가

모든 만물도 신이대!!!

성경에는 모든 만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다고 하였다. 말씀은 생명이요, 생명은 빛이요, 빛은 성령이라고 하였다. 성령은 하나님의 빛이요, 빛은 생명이요, 생명은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빛이 성령이요, 성령이 바로 하나님이니, 이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분신이요, 신인 것이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살펴보면 공기, 나무, 쇠 등의 모든 만물은 전부 원소 하나하나가 모여서 물질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원소의 밀집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쇠와 같은 단단한 물질이 되고, 원소의 밀집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공기나 나무와 같은 약한 물질이 되는 것이다. 그 원소 속에는 핵과 중성자를 중심으로 전자가 돌아고 있다. 전자가 도는 것은 힘(Energy)이 있기 때문이다. 즉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다.

구세주 말씀 중에세!

척추 비틀기~

허리의 유연성을 높이고, 뼈를 빠르게 잡아준다. 근육의 개폐력을 높여서 장의 연동운동을 촉진하므로 장의 움직임이 활발해져서 배설이 잘 되어 간이 편안해진다. 상체 전체를 비틀어 엉덩이와 다리의 탄력을 강화한다.

동작①: 누워서 한쪽 무릎을 높이 들어 올린다. 20초 유지. 좌우 각각 3회.

동작②: 숨을 깊게 마시고 내쉬면서 반대쪽 바닥에 내린다. 20초 유지. 좌우 각각 3회.

동작③: 옆드려 머리 뒤에 양손 깍지를 끼고 다리는 골반 너비로 발등을 바닥에 댄다. 20초 유지. 좌우 각각 3회.

동작④: 숨을 내쉬며 한쪽 어깨를 들어 상체를 비틀어 양 어깨를 바닥에 댄다. 20초 유지. 좌우 각각 3회.

주의: 골반과 다리를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동작 ①



동작 ②



동작 ③



동작 ④

정도령이 감로해인으로 마귀들을 박멸소탕하느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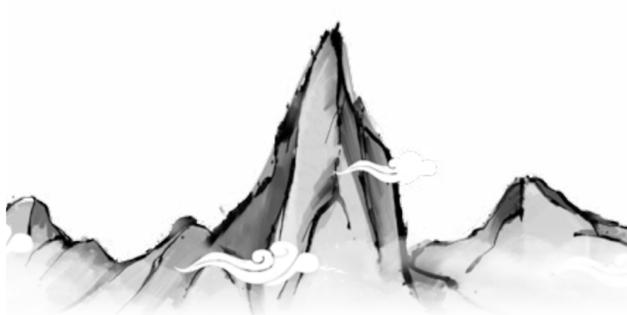
천운(天運)이 열리지 않은 때에 나온 자는 정도령이 아니니라



격암유록 新해설 제51회

弓乙論(六) 궁을론

三分鼎峙龍兔之論 삼분정지룡토지론
李鄭爭鬪各守一鎮 이정쟁투각수일진
無罪養生萬無一生 무죄양생만일생
長弓射矢萬人求活 장궁사만인구활
山鳥騎豚渡野溪邊 산조기둔도야계변
鼠女孀日三床後臥 서녀은일삼상후와
走肖神將葛光勇士 주초신장갈강용사
白眉將軍湯川之魚 백미장군갈천지어
八鄭之中三傑一人 팔정지중삼걸일인
靑眉大將異陵非衣 청미대장이능비의
人王四維千人得生 인왕사유천인득생
分國爭雄三傑之人 분국쟁웅삼걸지인
南步老將白首君주 남보노장백수군왕
七李相爭勝則一人 칠이상쟁승리일인
三分天下假鄭三年 삼분천하 가정삼년
道下止人天破修身 도하지인천파수신
口出刃劍奮打滅魔 구출인검분타멸마
躡坐誦真萬無一傷 귀좌승진만무일상
鬼不矢口六千歲龍 귀불사구육천세룡
權柄之世坐居龍床 권병지세좌거룡상
妖鬼猖獗火滅其中 요귀창렬화멸기중



은 삼인동행(三人同行)하시니 마지막 으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모신 구원의 정도령(궁은 81궁)은 세 분의 걸출한 사람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사람(구세주)으로서 동방으로 오신 분이니라. 빛나는 신선으로서 사람 몸을 입고 오신 인왕(人王)이시니 수많은 사람이 영생을 얻으리라. 그분은 마음의 영적나라에서 자기(마귀)와 투쟁하던 세 사람의 걸출한 사람 중 한 분으로서 남조선 자하도로 오신 노장(老將) 즉 노련한 장수인데 금운으로 오셔서 영적 군왕의 우두머리가 되셨느니라.(삼위일체 하나님이 좌정하신 분)

세상 사람으로서 마귀의 불이 들어 있는 사람들이(거짓 목자) 서로 싸우기 바빴지만 최후로 승리한 사람은 구원의 정도령이니라. 천하가 삼분되어 3년간 가짜 정도령이 활거하였으나 구원의 정도령은 몸이 부서지도록 용맹정진 영원한 생명의 도를 닦아 영생의 대도를 완성하느니라. 입에서는 날카로운 진리의 검을 휘둘러 마귀를 때려 부숴버리니 정도령을 따르는 사람들이 무릎 꿇고 멸마경을 외울 때에 하나라도 상하지 않느니라.

육천 년 묵은 용이 마귀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몰랐느니라. 세상의 모든 권

세를 쥐고 용상에 앉아 왔던 마귀대장이 요사스런 마귀들을 창궐하게 하였으나 정도령의 화인(火印=감로해인)으로 하나도 남김없이 멸하느니라.

道下止 도하지

道者弓弓之道無文之通也
도자궁궁지도무문지통야
도자궁궁지도무문지통야
行惡之人不覺之意 행악지인불각지의
此言不中非天語 차언부중비천어
時運不開否道否 시운불개부도령
심도지인각지득야생야
심도지인각지득야생야
訣云人惠無心村十八退
결운인혜무심촌십팔퇴
丁目雙角三卜人也 정목쌍각삼복인야
千口人間以着冠 천구인간이착관야
破字妙理出於道下止也
파자묘리출어도하지야
不覺此意平生修身不免怨無心矣
불각지의평생수신불면원무심의
憤覺之哉 신각지재
弓弓之道 儒佛仙合一之道天下之傑也
궁궁지도 유불선합일지도천하거중야

도(道)란 궁궁(弓弓=백심승)의 도(道)요 글 없이도 통하느니라. 악을 행하는 사람은 그 뜻을 깨닫지 못하지

만 참된 도를 찾는 자는 진실로 깨달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비결에 이르기를 인혜무심촌십팔퇴(人惠無心村十八退)은 전(傳)자가 되고 정목쌍각삼복인(丁目雙角三卜人)은 도(道)자이다. 천구인간이착관(千口人間以着冠)은 관(冠)이다. 합하면 전도관(傳道館)이 되는데 파자(破字)의 묘한 이치에서 나온 그 도(道)아래에 그쳐야 할 것이나 이러한 뜻을 깨닫지 못하면 평생 수도해도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부디 이 뜻을 깨달을 지라.

원무심(怨無心)은 죽을 사(死)자이다. 궁궁지도(弓弓之道)는 유불선이 하나로 합친 도요 천하의 으뜸가는 구세주 하나님의 도이니라.

訣云 利在弓弓乙乙田田

결운 리재궁궁을을전전
是天坡之三人一梯從者生矣
시천파자삼인일식 시운부중비천어
此言不中非天語 차언부중비천어
時運不開否道否 시운불개부도령

비결에 이르기를 이로우이 궁궁을을 전전(利在弓弓乙乙田田)에 있느니라.

이것이 죽을 없는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는 도를 닦음이니라. 감(감)나무를 따르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한마디로 전도관의 줄기를 이어 받았으나 다시 한 번 거듭나서 유불선합일의 도가 완성이 되는 것이니라.

5도 72궁을 거쳐 6도 81궁 정도령에 이르러 도가 완성되는 것이니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으며 천운(天運)이 열리지 않은 때에 나온 자는 정도령이 아니니라.*

박명하 / 고서연구가 myunghpark23@naver.com

나를 이기는 길

마음이란 무엇인가

(전호에서 계속)
그게 무슨 말입니까? 깨달은 자는 모든 인과관계를 다 아는 자라니요.

선생님: 모든 일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는 말이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것이지 콩 심은 데 팥이 날 수는 없다.

물론 그렇지요. 그러면 도둑질도 물건을 훔친 것이 아니라 생명을 해친 것이고, 설령 도둑질할 마음만 먹은 것도 생명을 해친 것이라는 말입니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생님: 생명의 실상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다. 생명이 뭔지 아는가?

생명이란 살아 있는 거 아닙니까? 피가 돌고 숨을 쉬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질문을 하나 하겠다. 지금 내가 들고 있는 볼펜을 그대가 보고 있다. 어떤 것이 볼펜을 보고 있는 것인가?

그야 눈이 보죠!
선생님: 그렇다면 눈을 뽀아서 놓으면 볼 수 있는가?

못 보죠.
선생님: 그렇다면 뭐가 보는 것인가? 글썄요. 그렇게 말씀하니까 조금 어려운데요. 마음이 보는 거 아닌가요? (살짝 자신감이 없는 말투였다)

선생님: 마음? 마음이라고? 그 마음이란 게 어디에 있는가?

마음이란 "딱 이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요. 말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뭐라는 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생명이 뭐가라는 것부터 답을 해 주셔야지 그건 말씀하지 않고서 마음을 얘기하면 헛갈립니다.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 이야기인데 쉽게 말씀해주세요.

선생님: 앞에서 불펜을 보는 주체가 눈이 아니라라고 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눈을 통해서 본다고 해야 한다. 그러면 눈을 통해서 보는 그 주체는 무엇인가? 다시 한 번 물어보겠다. 지금 우리 앞에 방금 죽은 시체가 있다고 하자. 그러면 그 시체는 이 볼펜을 볼 수 있는가? 못 보겠죠!

선생님: 그렇다. 보지 못한다. 그렇다면 보는 주체가 뭔지 알겠는가? 이걸 알면 깨달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보지 못한다. 그렇다면 보는 주체가 뭔지 알겠는가? 이걸 알면 깨달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도무지 감이 안 잡혔다. 나는 그걸 마치 화두(話頭)처럼 생각하며 집에 와서도 답을 찾으려고 애썼지만 알 수가 없었다. 밤새 생각해보지만 도대체 그 보는 주체가 뭐지 알 수가 없었다.

친구들이 무슨 일이 있느냐고 내게 물었다. 꽤왔던 내가 표정이 달라진 걸 보고 그렇게 묻는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승리신문

1990.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충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됨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422-826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부제단 032-343-9981~2

전국제단 및 해외제단 연락처

역곡제단 : (032)343-9981-2
수원제단 : (031)236-8465
안성제단 : (031) 673-4635
평택제단 : 010-7516-1591
부산제단 : (051)863-6307
영도제단 : (010)6692-7582

김해제단 : (055)327-2072
대구제단 : (010)6530-7909
마산제단 : (055)241-1161
진주제단 : (055)745-9228
진해제단 : (055)544-7464
영천제단 : (054)333-7121

사천제단 : (055)855-4270
포항제단 : (054)291-6867
순천제단 : (061)744-8007
정읍제단 : (063)533-7125
군산제단 : (063)461-3491
대전제단 : (042)522-1560

청주제단 : (010)5484-0447
충주제단 : 010-9980-5805
강릉제단 : 033-535-8254
橫濱祭壇 : (045)489-9343
神戶祭壇 : (078)862-9522

下關祭壇 : (0832)32-1988
大阪祭壇 : (06)6451-3914

London: (0208)894-1075
Sydney : (006)0415-727-001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